

Lee Eun | Kim Suji | Jung Anyong
Jackson Shim | Gungho

Mythologies of Today

2024.1.26^{FRI} - 3.10^{SUN}

CARIN

154, Dalmaj-gil 65beon-gil, Haeundae-gu, Busan, Korea | T. 051 747 9305 | contemporaryartstitute.com

1.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오늘의 신화 Mythologies of today
참여 작가	김수지, 남궁호, 이은, 잭슨심, 정안용
전시 기간	2024.1.26(금) - 3.10(일), 오전10시 - 오후6시,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CARI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오픈 행사	2024.1.26(금) 오후5시 작가와의 대화
담당 연락	양유진 / 051 747 9305 / carinofficial@naver.com

2. 전시 서문

CARIN에서는 '오늘의 신화'라는 주제로 2024년의 첫 번째 기획전을 문 연다. 김수지, 남궁호, 이은, 정안용, 잭슨심 작가는 그들의 유년기를 지배했던 혹은 오늘날 유아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여러 유명 캐릭터들과 스토리의 주인공들을 작가 나름의 방법론으로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주제에 착안하여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에서도 '대개 그러하도록 생각되어지는', 혹은 '그러하게 생각되도록 계획된' 상징물의 이면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클리셰를 깨어내는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작가들은 각자의 문체로 <신화Mythologie>가 갖는 가상현실적 속성을 오늘의 신화가 된 주인공들을 통해 이야기한다.

Suji Kim 김수지(b.1997)

유년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온 김수지 작가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을 졸업하고 3년 전 귀국하여 부산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김수지의 평면은 얼핏 '서사를 지닌 바니타스 정물화'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작가가 17세기 정물화의 상징을 다양하게 차용하지만, 꿈의 서사를 가져와 풀어 놓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는 논리의 끈이 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각 다른 서사의 레이어가 반복되듯 느슨하게 이어진다. 작품 속에서도 겹겹이 레이어가 쌓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불연속 되는 장면들이 혼합되고 이것을 작가는 회화 특유의 편평함으로 재해석한다. 작가는 이전 작업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미국에서 경험한 카툰, 광고 이미지 등에 상징화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이야기해 왔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꿈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시공간 속에 회화적 상징물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Gungho 남궁호(b.1993)

남궁호의 작품들도 선명한 색감과 유머러스한 표현이 얼핏 재미있는 캐릭터화 같아 보이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꽤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무빙 라이프 moving life 시리즈는 17세기 바니타스정물화 still life에서 사용한 여러 상징물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죽음 혹은 삶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대상들에 표정과 생동감을 더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되묻는 것 같기도 하다. 죽는다는 것이 존재의 소멸됨이 아니라 잠시 눈 붙이고 잠을 청한 것이거나, 혹은 어디론가 떠나는 것, 즉 공간의 이동(무빙)일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뭉글뭉글한 구름이라는 문체로 이제껏 우리가 그러하다고 생각해 온 세상의 형상들에 여러 질문을 던진다.

Lee Eun 이은(b.1995)

이은은 이화여자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울과기대에서 조형예술학 석사를 받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얼핏 미래주의적 표현을 입은 캐릭터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작가는 '붙잡

하지 않는 순간'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다. 100년 전, 인간들이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에 대해 충격적 두려움을 느꼈던 것과 같이 작가는 미디어가 지배한 오늘날의 시대상을 <움직임>이라는 화두로 받아 내고 있는 듯하다. 작가는 쇼츠, 움짤 등과 같은 디지털 파일(GIF), 이상하리만큼 고취된 가족성과 지금의 1인 가구 시대, 늘 발랄할 것만 같은 캐릭터들과 그들이 주입시키는 가치관 등을 작가 자신의 몸을 통해 화면으로 옮겨내고자 한다. 반복적 움직임을 계속하는 현대의 영상 문물들이 쏟아 내는 이미지의 홍수에 대한 작가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양면성을 가진 것들의 격차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시각화한다.

Jung Anyong 정안용 (b.1985)

부산대학에서 조각을 공부한 **정안용**은 사라지는 모습을 '연기'로 표현하여 사진 매체에 담은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을 조형적으로 '사라져가는' 혹은 '생겨나는' 찰나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시도를 선보인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의 신화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문장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卽是空, 空卽是色'이었다. 관념적인 개념들은 오늘날 마치 실존하는 무엇으로 역할하고 움직이며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디서부터 좌파이고 우파인지 편가를 수 없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구분 또한 수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관념을 어떻게 점수 매길 수 있는지조차 모호하지만, 그것은 이미 강력한 힘을 휘두르기도 한다. 작가의 '사라지는', 혹은 '생겨나는' 연기와 존재의 실체는 그러한 존재의 실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느껴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부처나 보살의 모습 또한 어느 모든 종교에서와 같이, 존재를 형상화함으로써 그 속의 무한히 응축되는 지식과 역사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인간들의 감정을 채찍질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Jackson Shim 잭슨심 (b.1979)

잭슨심은 홍익대학에서 영상과 영화를 공부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영화 포스터 같아 보이기도 한다. 로봇이 각각 영화 주인공이 되어 마치 한 편의 예고편을 보여 주듯 리드미컬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도널드 덕, 핑크 팬더, 도라에몽은 작가 특유의 자유분방한 필체의 회화적 옷을 입고 새로운 표정을 얻는다.

그의 로봇들은 원래 애니메이션이 지닌 서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관객의 마음속에 새로운 상상을 도모할 계기로 다가온다. 잭슨심의 '로봇회화'는 적을 무찌르기 위한 출격에도, 상대를 성공적으로 제압한 뒤 행하는 귀환에도 복속되지 않은 로봇의 상태를 선보인다. 로봇과 인간 사이의 친근감도 매정함도 쉬이 확정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설계 덕분에, 자연스레 안주해 온 동심의 영역에서 벗어날 계기를 얻는다. 어린아이는 설계도대로 구현된 결과물에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어린아이란 그러한 결과물에서 비껴 난 폐기물 같은 사물을 눈여겨본다. 그리고 사물을 기존의 사용 패턴과 달리 만지며 새로운 세계를 창안해 내는 존재다.

3. 주요 작품 이미지



Suji Kim

Lucid Vision/ Distant Dream II, 116.8 x 91cm, Oil on canvas, 2023



GUNGHO

Girl with a cloud earring, 80.3 x 65.1cm, Acrylic on canvas, 2023



Lee Eun

Eek, 130.3 x 193.9cm, Acrylic, Oil on canvas, 2022



Jung Anyong

Rising form, 20 x 20cm, Sinus(Made in France), 2020



Jackson Shim

ALPHABET CARD DUMBO 5, 117 x 91cm, Acrylic, Oil pastel, Collage, 2022